

무적함대 vs 전차군단... '미리 보는 결승전'

스페인·독일 6일 유로 8강 격돌 각 3회 우승... '창과 창'의 대결 베테랑 모라타·고별전 크로스 팽팽한 전력에 승리 38:34 점쳐

유럽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24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가 4강으로 향하는 길목에 빅 매치가 이어진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경기는 6일 오전 1시(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무적함대' 스페인과 개최국인 '전차군단' 독일의 맞대결이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 불린다. 현대 축구 전술의 뿌리를 이루는 스페인의 '타키타카'(패스와 점유율 위주의 축구)와 독일의 '계겐 프레싱'(압박 축구)이 정면 충돌한다.

우승을 향한 독일의 열망은 2021년 국가대표를 은퇴한 토니 크로스(무소속)까지 3년 만에 다시 불러들일 정도로 가득 차다. 크로스는 유로 2024 직후 현역 생활을 마친다. 토너먼트에서의 패배는 곧 은퇴다. 2골을 기록중인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아스날) 미드필더 일카이 킨도안(FC 바르셀로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도 만만치 않다. 스페인은 32세의 베테랑 알바로 모라타(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2002년생 니코 윌리엄스(아틀



'무적함대' 스페인과 '전차군단' 독일이 6일 오전1시(한국시간) 유로2024 준결승 길목에서 맞붙는다. 스페인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왼쪽)와 미드필더 독일의 토니 크로스는 각 팀의 핵심 자원이다.

AFP=연합뉴스

레티 발바오, 2007년생 라민 야말(FC 바르셀로나)등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스페인은 도움 2개를 기록 중인 야말의 오른쪽 측면 돌파로 만들어지는 득점 기회를 통해 독일 골문을 노릴 작정이다.

양 팀의 8강전은 '창과 창'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번 대회 16강전까지 4경기에서 모두 10골(2실점)을 넣어 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9골(1실점)로 2위다. 독일은 3골로 개인 득점 공동 선두인 21살의 '영건' 저말 무시알라(바이에른 뮌헨)가 공격을 이끈다. 스페인은 뛰어난 개인기를 앞세워 도움 2개를 기록 중인 라민 야말의 측면 돌파로 만들어지는 득점 기회를 통해 독일 골문을 노릴 작정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위인 스페인, 16위로 처져 있는 독일 두 나라는 각각 통산 3차례 유로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최다 우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독일은 1972년 첫 우승 이후 1980년과 1996년에 정상에 올랐다. 스페인은 1964년을 시작으로 2008년과 2012년에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맞대결 성적도 팽팽하다. 26전 9승9무8패로 독일이 근소한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4번의 승부에서는 스페인이 3승 1무로 앞서고 있으며, 유로 대회 본선 무대에서 스페인이 2승 1패로 우위다.

스포츠 통계 전문회사 옵타는 독일이 이길 확률을 34.2%, 스페인의 승리 확률을 38%로 예측했다. 두 팀이 연장전까지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결판날 확률은 27.8%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2조6000억 쓰고 우승 못 한 맨유... 직원 250명에 "짐 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입 구단주 짐 랫클리프가 대규모 감원을 단행키로 했다고 BBC가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맨유 홈 구장 올드 트래퍼드. AP=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문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감원의 칼바람을 맞는다.

맨유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직원 250명을 감원한다고 영국 BBC가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맨유는 비용 절감과 비필수 사업을 줄이는 취지로 250개의 일자리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직원 1150명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5명 중 1명은 잘린다는 얘기가. 구단주가 2월 바뀐 뒤 진행되는 첫 구조조정이다.

2월 화학회사 이네오스 창립자인 영국의 짐 랫클리프가 맨유 지분 27.7%를 확보하며 새 구단주가 됐다. 랫클리프 체제의 맨유는 구단 규모가 성과에 비해 너무 비대하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에 따라 결국 대규모 감원을 결정했다. 장클로드 블랑 임시 최고경영자가 이미 직원 800명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감원 소식을 알렸다고 BBC는 전했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맨유는 과거 10여 년간 스타 선수 영입에 천문

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우승 한 번 못한 터라 일반 직원을 큰 폭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은 작지 않을 걸로 보인다.

맨유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지휘하던 2012~13시즌을 마지막으로 EPL 우승 트로피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후 맨유가 선수 영입에 쓴 돈은 무려 15억 파운드(약 2조6500억 원)에 달한다.

그간 '돈값'을 제대로 했다고 팬 대다수가 인정할만한 맨유 영입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르브론 제임스, 레이커스와 2년 1141억 계약

미국프로농구(NBA)의 스타 플레이어 르브론 제임스(39사진)가 예상보다는 작은 인상 폭으로 LA 레이커스와 재계약에 합의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4일(한국시간) 제임스가 2년간 1억400만 달러(약 1441억9000만 원)에 트레이드 거부 조항 등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레이커스에 남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4~25시즌에 예정된 5140만 달러의 급여에서 소폭 인상된 금액이다. 이 매체는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 협상을 통해 제임스의 급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로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구단으로서의 샐러리캡 초과로 부유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전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팀에서 뛰게 된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는 4년간 790만 달러(약 109억 원)에 계약했다. 현지 매체들은 NBA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된 선수로서는 드물게 좋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RomaRo GRAND QUALITY

Confidence in the Short game.

Alcobaça ASA WEDGE LADY

www.romarogolf.co.kr